

W:WOOSUNG

2024년 1월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1월 4주차 HOT ISSUE

- 경북, 경기도 양돈장 ASF 발생
- “농장경영 20년만에 처음”... PED 신규감염 급증

올해에도 소 전두수 럼피스킨 백신접종 예상 ‘접종시기는 논의 중’

농식품부, 전문가협의회·가축방역심의회 거쳐 2월 중 럼피스킨 대책 확정 예정
예산확보...예방백신 1년마다 추가접종 권장 ‘그러면 10~11월’ 접종
매개체 봄철부터 활동 “자칫 확산 빌미”...4월 접종 앞당겨야 주장 고개

올해에도 소 전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종시기를 두고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 방역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럼피스킨 위험도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1월 초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했다.

1월 말~2월 초에는 한번더 전문가협의회를 가진 후 2월 중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럼피스킨 방역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역대책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 여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 백신 접종 150여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전두수 접종 비용을 고려해 책정한 예산이다.

이를 봤을 때 올해에도 소 전두수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접종시기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럼피스킨 백신은 지난해 10월~11월 접종했다. 이 백신은 1년마다 추가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이 경우 올 10~11월에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하지만 흡혈 모기, 파리, 진드기 등 럼피스킨 매개체는 봄철부터 활동한다.

자칫 접종시기가 늦어진다면 전파 확산에 빌미를 제공하고, 농장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효능이 1년 이상인 만큼, 굳이 접종시기를 앞당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경북서 첫 양돈장 ASF 발생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 소재 양돈장에서 ASF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6일 양성으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해당농장에 대한 긴급 살처분과 함께 16일 20시부터 오는 18일 20시까지 48시간 대구경북 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대(10km)내에는 모두 4농가에서 5천820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 인근에서는 지난 12월13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모두 4건의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돼 왔다.

이 가운데 처음 확인된 야생멧돼지 ASF의 경우 농장과는 1.9km 거리에 불과하다.

해당 농장은 지난 8일 이후 모돈 9두와 비육돈 40두에서 폐사가 발생, 9일 간이 혈액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 ASF 의심농장 '확진'

경북 영덕에 이어 경기도 파주에서도 양돈장 ASF가 추가로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소재 돼지 2천600두 사육규모의 양돈장이 18일 18시경 ASF 확진을 받았다.

이에따라 경기북부 7개 시군과 강원 철원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해당농장에서는 모돈 19두(17일 10두, 18일 9두)가 폐사했다며 ASF 의심신고가 18일 오전 접수된 바 있다.

방역대에는 500~3km에 17개 농장 3만490두가, 3~10km에는 39개 농장 6만9천 930두가 사육되고 있다.

“농장경영 20년만에 처음”... PED 신규감염 급증

PED가 비상이다.

무엇보다 신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돈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일선 수의사들에 따르면 올들어 PED 의심과 확진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의사는 “이달 들어서만 지난 한해 의뢰된 PED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것도 이전에는 발생이 없던 신규 발생농가들”이라며 “워낙 급속히 확산되다 보니 특정 요인에 의한 전파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만 해도 발생했던 농가를 중심으로 재발이 주로 이뤄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이쁜 것이다.

실제로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달 농장 경영 20년만에 처음으로 PED를 맞았다. 분만사를 통해 첫 감염이 이뤄지다 보니 피해가 막심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따라 일부 양돈조합에서는 도축장 출입 차량을 중심으로 추적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D 발생이 비단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기권의 한 수의사도 “한달전부터 포천과 연천 등에서 PED 발생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며 “호남권의 빈도수가 높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의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양돈농가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PRRS, 전국단위 통제전략 시급”

백신 사용을 포함해 전국 단위의 통일된 PRRS 통제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 (도담동물병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이하 합동방역위)에서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PRRS 국내 발생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강조했다.

최종영 회장에 따르면 국내에서 다양한 PRRS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병원성이 높아지고 피해 지속기간도 증가, 앞으로 PRRS의 통제없이는 양돈을 통한 수익 창출은 물론 항생제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회원 수의사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백신효과의 한계에 따른 재감염률 증가속에 여러가지 백신 제품의 혼용 등으로 국내 양돈 현장에서는 정확한 바이러스 유형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안정화 여부마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의전문가들 마다 여러가지 방역(안정화)대책이 제시, 접목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종영 회장은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혼란을 해소하고 PRRS 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생산자, 농가 공동으로 전국 단위의 통일된 PRRS 통제전략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통해 진단과 진료시스템의 작동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백신도 신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사에 의한 사용 및 기록보고가 이뤄지는 등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종영 회장은 “(돼지수의사회)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수의사들의 통일된 PRRS 전략을 희망했다” 며 “공기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내 농장의 바이러스가 다른 농장에 피해를 입히고, 이는 곧 지역적으로 연쇄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농가들도 나혼자만의 노력으로 PRRS 방어는 불가능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돼짓값 약세로 새해부터 '적자'



지난 1월 한돈가격 약세로 농가 평균 2천700만~3천1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돈협회는 새해 돼짓값 하락 장기화에 농가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한돈농가 긴급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언론에 재차 호소했다.

먼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설 및 기존 특별사료구매 자금의 상환 기간 연장,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 정부정책자금 상환 기간 1년 연장 및 한시적 무이자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영부담이 심화된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한시 지원하고,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에서 농사용 고압을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백신 피해 완화를 위한 △돼지열병(CSF) 백신 변경 △구제역(FMD) 백신 피내접종 허용 등을 요구했으며, 가축분뇨 처리비 부담 완화, 민관공동 돼지 수매 추진, 대대적인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손세희 회장은 "돈가 하락, 사료값 폭등, 생산비 급증, 소비침체 등으로 한돈농가의 가장 큰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한돈농가의 수익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한돈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기둥인 만큼 한돈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딛고 건실히 일어설 수 있도록 업계 전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